

깨어 있는 종

눅 12:35~48

찬송가 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러), 찬양 44장 (주여 오소서)

오늘 배울



1.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압니다.
2. 지혜 있고 진실한 종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이 있으리하다 (눅 12:42~43)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밤을 울에 처하리니 (눅 12:45~46)



을 이해하기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가 가깝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집 주인이 혼인집에 가고 없는 동안 그 집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이 행한 일에 대해 각각 칭찬과 책망을 받는 모습으로 심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결과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의 칭찬과 함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이 맡긴 일을 게을리 할 뿐 아니라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불성실한 자가 받아야 할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깨어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눅 12:40)

Therefore you also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Lk 12:40)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② 예수님은 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①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읽고 적어봅시다(사 53:2~6, 사 63:1~6, 살전 4:16~18, 계 19:14~16).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초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2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대로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를 세 가지만 찾아 적어봅시다.

1)

2)

3)

3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주님을 뵈올 때 아쉬움과 후회가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적어 봅시다.

4

깨어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 생활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적어 보고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변화되어야 할 것들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계획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마 25:13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의

롬 12:2

화

골 4:2

↑

살전 4:16

↓

히 9:28

↓

벧전 4:7

↓

계 22:12



플레처의 자기 반성

플레처는 9개 조의 좌우명을 만들어 이것을 거울 삼아 자기 속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깊이 훈계했습니다.

첫째, 내 영혼의 눈이 깨어 있는가? 오늘 아침 눈을 뜬 이래 그 생각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약한 정신에 붙들린 것이 아닌가?

셋째,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졌는가? 분투에 의해서 강해졌는가?

넷째, 나는 일체의 불친절한 말과 생각을 이겨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기뻐하지는 않았는가?

다섯째, 나는 빛과 힘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귀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했는가?

여섯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절약해야 할 경우 절약했는가?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무언가를 절약하지는 않았는가?

일곱째, 나는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혀를 잘 지배했는가?

여덟째, 나는 몇 번 나를 이겼는가?

아홉째, 나의 생활과 말이 복음에 합당하며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고 있는가?



질문 있어요~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까?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신약성서에 지옥을 ‘게헨나’로 표현했는데, 그 뜻은 ‘히놈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예루살렘 성 밖의 쓰레기 처리장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이 상징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실제로 사람들이 시체나 쓰레기를 버리고 태웠던 장소이었고,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지옥이 두려운 곳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 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사람에게 영원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부자와 나사로, 곧 실제 인물을 들어서 실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 10:2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막 9:48~49)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시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신하는 풍조가 너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역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물심판을 믿지 않았습니

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은 심판을 믿었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

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 여러 지역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으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 전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변화하였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지금은 추수 때

예수님은 추수 때라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쁘게 복음을 전함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당시의 종교가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 깨어있는 종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큰 상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기도

124



